KiRi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Ⅱ.

FY2011 주요 연구 계획

보험산업 성장 비전 구축과 경쟁력 강화
고령화에 대비한 보험산업의 역할 강화
소비자 보호 및 규제의 선진화
재무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강화

KiRi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Chapter 1

보험산업 성장 비전 구축과 경쟁력 강화

- 보험상품 유통채널구조 평가와 개선방안
- 자동차보험 안정화 방안 연구
- 재보험 해외수지 역조 개선방안
-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방안
- FY2011 보험산업 중장기 전망

보험상품 유통채널구조 평가와 개선방안

안철경(연구위원)·이경희(전문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배경 현재의 보험모집구조는 기본적으로 금융전업주의에 기초한 사업방식으로 금융겸업 및 글로벌 경쟁 환경에 적합한 소비자 중심의 유통채널이 필요한 실정이다. 겸업화 환경에서의 보험유통채널은 타 금융권과의 경쟁, 시스템의 효율성 및 글로벌 경쟁력은 물론 소비자 보호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2010 IAIS 연차회의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상품이 점차 복잡해지는 과정에서 금융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방어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현행 보험유통조직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금융환경 하에서 운영되는 국내외 금융유통구조에 대한 분석과 함께 사업모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유통채널의 전문화, 다양화를 위해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조사하고 국내 보험영업 환경과 접목함으로써 보험시장 확대방안을 꾀하고 이를 통해 중장기적인 보험유통구조의 거시적인 발전모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주요내용 본 연구는 현재의 보험사업 유통구조를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하고 향후 보험산업의 지속성장에 적합한 유통채널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첫째, 유통채널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자 한다. 우선 현행 보험상품 유통구조를 보험사업자 측면, 유통채널 측면, 소비자 측면 및 정책(법)적 측면에서 분석한다. 또한 유통채널별 권한과 책임 및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유통구조를 평가한 후, 구체적으로 현행 모집수수료 제도인 선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둘째, 타 금융상품인 예·적금, 대출,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카드 등의 유통채널을 조사하고 보험유통채널과 비교하여 그 특성 및 장단점을 제시한다.

셋째, 보험유통채널 구조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이러한 방안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구조개선의 기본방향은 고비용 회사중심에서 저비용·소비자 중심으로의 전환이다.

기대효과 본 연구를 통해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보험유통구조를 미래지향적인 소비자 중심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보험회사가 향후 진전된 금융겸업 환경에서도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전략을 구축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보험 안정화 방안 연구

기승도(전문연구위원)·이기형(선임연구위원)·황진태(연구위원)·김대환(연구위원)·정인영(연구원) | 보고서

연구목적 2000년대 이후 손해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려는데 반하여 소비자들은 인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반복되고 있다. 자동차보험료를 둘러싼 손해보험회사와 소비자 간의 반복되는 갈등은 자동차보험제도를 사업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손해보험회사의 시각과 사회보험의 일종 또는 강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 간주하는 소비자의 시각차이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손해보험회사와 소비자 사이에 반복되는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둘러싼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자동차보험 요율 제도 측면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주요내용 연구는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째, 1963년 자동차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자동차보험제도의 발전과정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현재 자동차보험제도에 남아있는 과거의 잔재들은 무엇인지, 향후 변화과정 중에서 어떤 제도들이 어느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지에 대한 방향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둘째, 자동차보험 시장참여자들이 자동차보험제도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자동차보험제도를 바라보는 시장참여자의 인식차이가 자동차보험료의 인상여부에 대해 상이한 반응이 나타나는 원인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셋째, 앞서 살펴본 자동차보험제도의 변천단계, 시장참여자들의 자동차보험제도에 대한 인식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을 토대로 현행 자동차보험제도의 개선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현재의 자동차보험제도의 개선사항과 현행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자동차보험 요율 인가제도와 관련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넷째, 도출된 개선방향을 근거로 구체적인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행 보험업법 등 제 법률, 현행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상품개발 및 요율조정 관행, 자동차보험 요율 관련 인가제도 전체 절차 등에서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본 연구결과가 자동차보험을 바라보는 두 이해관계자의 인식괴리를 최소화함으로써 자동차보험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최소화시키면서, 다양한 자동차보험 상품개발의 유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을 찾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재보험 해외수지 역조 개선방안

송윤아(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배경 우리나라 재보험산업은 해외출수재거래에서 과거 수년동안 지속적으로 수지차 역조를 보이고 있다. FY2009의 경우를 살펴보면, 해외로 출재한 보험료는 2조 383억 원, 출재수지차는 6,225억 원이었으며, 해외로 수재한 보험료는 1조 1,075억 원, 수재수지차는 1,664억 원이었다. 따라서 FY2009 재보험 해외수지는 4,561억 원 적자를 보였다. 재보험거래 특성상 해외출재시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해외 재보험수지 적자현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우량 담보물건의 과다한 해외 출재로 인한 재보험 수지 역조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재보험 거래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재보험 해외수지 역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먼저 재보험 출수재 실적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연도별·보험종목별·국별·출재방식별 해외 출수재 실적을 분석하고, 해외 재보험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규정을 조사한다. 더불어 재보험 해외수지 역조 원인으로서 협의요율 남용과 국내요율 부재, 국내 대형사고 및 자연재해 부재, 원보험사 간 재재보험 기피로 인한 국내 담보력 사용 부족, 위험의 대형화 추세, 그리고 인수위험의 재보험 전가를 통한 원수보험료 확대 등을 상세히 다룬다.

둘째, 재보험 해외수지 개선을 위해 주요국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보험증권화 활성화, 보험거래소 설립, 국내우선출재제도, 담보설정제도, 손해율 연동 재보험료 적용 등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재보험 해외수지 개선방안과 과제를 제시한다.

기대효과 국내 담보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량 담보의 해외 출재 남용을 최소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재보험의 해외수지 역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방안

황진태(연구위원)·조재린(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배경 날씨변화로 야기되는 리스크가 모든 경제주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이상기후현상이 잦아지면서 날씨리스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씨리스크 관련 헤징수단인 (지수형) 날씨보험이나 날씨파생상품에 대한 보험회사의 관심은 미흡한 수준이다.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관련 상품개발은 각 경제주체에게는 날씨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리스크 관리의 경험이 풍부한 보험회사에게는 신시장으로서의 진출기회가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과제에서는 날씨리스크에 대비한 날씨보험 또는 날씨파생상품의 도입 필요성을 논의하고, 날씨리스크 관련 상품의 적정가격설정(pricing)과 보험회사의 해당 상품판매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본 연구의 주요내용으로 우선 보험선진국인 미국, 일본,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거래되고 있는 날씨리스크 관련 보험이나 날씨파생상품, 그리고 해당 상품이 거래되고 있는 시장 특성을 문헌연구나 사례조사를 활용함으로써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날씨리스크에 노출되는 각 경제주체의 산업적 리스크 특징을 검토 및 분석한 후, 날씨리스크 관련 보험을 비롯한 파생금융상품 가격결정과 관련한 제모형을 연구하고, 이에 적합한 모형과 가격결정(pricing)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를 위한 관련 법규와 감독내용을 살펴보고, 동시에 해외사례와 비교한 후, 보험회사가 어떠한 방법으로 날씨리스크를 인수할 것인지 그리고 날씨리스크 인수와 관련하여 수립해야 할 경영전략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아울러 날씨보험이나 날씨파생상품의 판매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적 대안도 제시할 것이다.

기대효과 본 연구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날씨리스크 관련 금융상품의 도입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기본적인 가격결정(pricing)방안을 제공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날씨보험 또는 날씨파생상품개발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해당 상품의 기본적인 개발방향 및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보험회사에게 신시장개척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FY2011 보험산업 중장기 전망

동향분석실 | 보고서

연구배경 보험산업은 금융위기 이후 경쟁 심화, 신성장동력의 부재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중장기적 경영전략 및 비전 수립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향후 경제 및 보험산업의 주요 지표에 대한 중장기적 전망을 수행함으로써 업계 및 정책당국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와 더불어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과 베이비붐 세대들의 소비행태 변화 그리고 보험업법 개정안 및 자본시장법의 본격시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 등 다양한 제도적 변화도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사회적 환경 및 제도적 변화는 향후 보험수요의 변화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내용 주요 선진국들에 있어서 보험산업의 중장기적 성장패턴과 환경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국내 보험산업의 성장 및 구조변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경제·사회적 환경과 제도적 변화 등을 살펴본다.

보험산업 외부적으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여건이 크게 악화된 이후 성장성을 회복한 상황이지만 향후 경제 및 보험산업의 지속성장성에는 다양한 이견들이 제시되는 상황이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은 보험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내부적으로는 생명보험의 경우 비중이 미미했던 변액보험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수입보험료의 경기민감도가 높아지고 있고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장기보험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험산업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성장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기본적 분석을 토대로 보험산업의 향후 구조변화를 조망하고 주요 제도적 변화의 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보험수요에 대한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보험산업에 대한 중장기 전망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각에 대해서 주요지표를 중심으로 수행될 예정이며 경제규모 및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한 보험밀도, 보험침투도의 변화 추세 및 보험산업의 수익성 변화도 동시에 전망하고자 한다. 전망작업을 위하여 경제지표, 인구지표, 사회지표, 보험지표 등을 포괄하는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지난 20년간의 데이터를 통해 전망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새로운 경영전략을 필요로 하는 각 보험회사들과 정책당국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KiRi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Chapter 2

고령화에 대비한 보험산업의 역할 강화

- 장수리스크를 고려한 보험회사 역할 제고 방안
- 퇴직연금 지배구조 체계 개선방안 연구
- 보험산업 비전 2020
- 은퇴시장에 관한 종합 연구

장수리스크를 고려한 보험회사 역할 제고 방안

김대환(연구위원)·류건식(선임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배경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소득과 소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장수리스크가 점증하여 장수리스크 관리자로서의 보험회사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연금소득)과 소비(노년의료비 등)를 고려하여 개인의 장수리스크를 추정하고 선진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동향(연금상품개발, 장수리스크 헤지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 입장에서의 장수리스크관리뿐만 아니라 보험회사 입장에서의 장수리스크관리(보험리스크)를 상호연계하여 보험회사의 역할과 리스크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인구의 고령화는 국가의 재정적 차원에서 중요한 관심 사항이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도 고령화에 따라 노후생활에 충당하기 위한 소득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상황 하에서 소득과 소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향후 우리나라 국민들이 직면할 장수리스크를 규명해 본다. 개인은 소득과 소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장수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은퇴 이후 노후소득의 평활화(smoothing)를 위해 종신연금에 가입하려는 유인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직면하는 장수리스크는 비단 가입자들의 기대수명 증가뿐만 아니라 연금가입자들의 역선택(Adverse Selection)에 의해서도 초래된다. 전자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졌지만 후자는 한국에서 실증적으로 증명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종신연금 가입자들의 역선택 존재 여부를 실증적으로 증명하고 보험회사가 직면하는 장수리스크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보험회사가 직면하는 장수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 해외사례 등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우리나라 국민과 보험회사가 직면하는 장수리스크 존재여부 및 수준에 대한 인지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보험회사의 역할 제고방안을 모색하고 보험회사가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무엇보다 연금에서의 역선택은 가용자료의 한계로 여전히 연구되어지고 있는 주제이며, 특히 한국의 샘플을 활용한 시도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본 연구는 한국의 샘플을 활용하여 종신연금 잠재가입자들의 역선택을 확인해보고, 역선택이 존재할 경우 보험회사가 직면할 수 있는 장수리스크와 이를 헤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아가 헤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소개한다.

퇴직연금 지배구조 체계 개선방안 연구

류건식(선임연구위원)·김대환(연구위원)·이상우(선임연구원) | 보고서

연구목적 계약형 퇴직연금 지배구조 형태를 지니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영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퇴직연금 제도의 감시기능과 운용의 투명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기업과 사업자인 금융기관이 일대일로 계약하는 형태를 띠고 있어 금전 및 거래관계에 의해 계약이 좌우될 가능성이 있으며, 연금계리사 등 사업자를 감시할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계약형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문제를 보완하고자 정부는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은 기금형 퇴직연금 지배구조로 전환하거나 다른 지배구조 형태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퇴직연금 지배구조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한 지배구조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지배구조 관련 규정 및 기금형 운영체계 등을 살펴본 후에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OECD를 비롯한 국제연금 감독기구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배구조 관련 규정과 더불어 기금형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운용체계의 제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지배구조 운용체계에서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 퇴직계좌형 등으로 세분화하여 운용체계상의 특징을 검토하고 계약형 퇴직연금 지배구조와 기금형 퇴직연금 지배구조상의 감시기능체계, 연금공시체계, 연금감독체계 등을 비교하고자 한다.

또한 선진국의 사례를 기초로 기금형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운용성과를 살펴보고 기금형 퇴직금 지배구조 도입 시 가입자와 기업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은 단기방안과 중장기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단기방안에서는 계약형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골격을 유지하되 기금형에 준하는 제도개선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 중장기방안에서는 기금형 퇴직연금 지배구조가 도입되는 경우를 가정하되, 우리나라 특수성에 부합한 퇴직연금 지배구조를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기대효과 기금형 지배구조 관점에서 연금감독, 감시기능, 수급권보장, 연금공시 등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한 지배구조 개선 및 적용방안 모색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로자의 수급권보호가 강화되고 자본시장의 성장에 영향을 주어 퇴직연금시장에서 금융의 역할 증대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보험산업 비전 2020

진익(연구위원) 외 공동연구 | 보고서

연구배경 보험산업이 보장기능을 능동적으로 확대할 경우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보험산업은 경제 환경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그 위상이 위축되고 있다. 보험산업의 능동적 역할 확대 필요성에 대해 여론 주도층과 정책당국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며, 보험회사 경영진의 발전비전도 단기적 경영성과에 치중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 경제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국내 보험회사들이 기존의 사업모형을 답습할 경우, 지속 성장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험회사 경영환경을 규정하는 국가 경제 환경을 볼 때, 기존 성장동력 소진을 대체할 신성장동력 발굴 지연, 저출산·고령화 및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 글로벌화 추세 속에서 금융산업 경쟁력 정체 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보험산업(회사)가 지속성장을 도모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동적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주요내용 우선 본 연구는 국가 경제가 직면한 현안 과제들 중 금융기능을 통해 대응이 가능한 과제들(저출산·고령화, 녹색성장,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 신성장동력 발굴, 기후변화 대응, 금융산업 글로벌화,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조사하고, 각 과제별로 금융기능을 활용한 능동적 대응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현안 과제에 대응한 보험산업의 기여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국가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필요한 금융회사·시장의 기능(자금중개, 위험관리, 정보생산 등)의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타 경제주체들의 금융혁신을 지원하는 보장기능을 모색하고자 한다.

끝으로, 보험산업의 능동적 역할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사항과 관련하여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국내 보험업의 능동적 역할 확대를 위한 국내 보험제도(요율제도, 준비금제도, 자기자본규제, 진입·퇴출규제, 업무영역규제, 소비자보호 등)의 개선 필요성을 확인하는 한편, 국내 보험업의 능동적 역할 확대에 상응하는 경영전략 및 사업모형(가격, 상품(판매채널), 자산운용, 업무다각화, 지배구조 등) 전환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본 연구는 보험산업 발전과 보험기능 확충을 통해 국가 경제가 직면한 당면 과제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한편, 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보험회사의 지속성장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모형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이 공감대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은퇴시장에 관한 종합 연구

윤성훈(선임연구위원) 외 공동연구 | 보고서

연구배경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은퇴관련 시장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인구의 14.6%를 차지하고 있는 1차 베이비 붐(1955~63년생) 세대의 은퇴시기(55세)가 2010년에 도래하였고 2010년 총인구의 11%에 불과한 65세 이상 인구도 2050년 38.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향후 이들 은퇴가구(개인)의 증가는 이들의 자산구조, 소비행태 등의 변화를 통해 금융시장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은퇴가구(개인) 및 은퇴전 가구(개인)와 관련된 체계적인 연구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며 은퇴관련 주요 주제를 개별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퇴와 관련된 연구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주요내용 은퇴와 관련하여 첫째, 은퇴가구의 경제행태 분석, 둘째, 은퇴결정요인 분석, 셋째, 은퇴가구의 리스크 분석, 넷째, 은퇴와 재무설계, 다섯째, 은퇴와 사회보장체계 및 정부정책 등에 관해 단계적으로 연구할 것이다. 이들 주제는 서로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데, FY2011에는 은퇴와 관련된 가장 기초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는 은퇴가구의 경제행태 분석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연구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은퇴 전후 소비 및 저축행태를 분석하고 은퇴전후 자산보유 및 운용행태를 검토하며, 이를 바탕으로 은퇴대비 소득 및 자산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보다 고령화 정도가 앞선 국가들의 은퇴시장에 대해 조사하고 정리할 것이다.

기대효과 은퇴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은퇴시장이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에 대해 큰 그림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은퇴대비가 시급한 상황에서 은퇴자산의 형성 및 그 이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아울러 본 연구결과는 보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전통적인 보험영업뿐만 아니라 보험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과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타 금융업권과의 경쟁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가 은퇴시장 분석에 있어서 노동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는 달리 본고는 은퇴가구(개인)의 경제행태 및 금융행태에 보다 주목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KiRi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Chapter 3

소비자 보호 및 규제의 선진화

- 보험지주회사 규제 및 감독방안 연구
- 재보험거래의 안전성 제고방안 연구
- 보험회사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금융규제 체계의 국제적 조화방안 연구
-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연구

보험지주회사 규제 및 감독방안 연구

이승준(연구위원)·김경환(전문연구위원)·오병국(연구원) | 보고서

연구배경 2010년에 메리츠화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지주회사 설립 예비인가를 받았고 동부화재 등 다른 보험회사들도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준비 중이다. 또한 일반지주회사도 중간지주회사의 형태로 보험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등 향후 우리나라 보험산업에서도 보험지주회사의 출현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또한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는 보험그룹에 대한 그룹감독체계(Group Supervision Framework)를 개발 중에 있는 등 국제적으로도 보험그룹의 감독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보험감독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보험지주회사의 규제 및 감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국제적 정합성 및 국내적 적합성에 맞는 보험지주회사 감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보험지주회사의 규제 및 감독에 있어서 금융지주회사의 한 종류로서 은행지주회사와의 공통점 및 보험지주회사만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더불어 금산분리 문제 등 한국의 경제 및 금융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보험지주회사의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감독방안을 모색하여 본다.

이를 위해 우선 국내 금융지주회사 감독 관련 제도 및 현황을 살펴보고 금융지주회사 감독 상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또한 주요 금융선진국의 보험지주회사 감독 제도, 현황과 사례를 조사하고 우리나라의 보험지주회사 감독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해 본다.

국내외 금융 및 보험지주회사 규제 및 감독 제도 및 현황에 대한 조사로부터 우리나라 보험지주회사의 감독 방향에 대한 방안을 찾아본다. 특히 금융지주회사의 일반적인 공통점과 보험지주회사의 특수성을 규제 및 감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본 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보험지주회사 규제 및 감독 방안이 제시되면, 보험회사의 규제비용을 낮추어 보험산업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보험 및 금융감독의 중복 또는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감독의 효율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재보험거래의 안전성 제고방안 연구

송윤아(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배경 우리나라는 1997년 재보험시장을 개방하여 해외재보험회사들의 국내시장 진입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재보험거래의 안전성을 담보할 후속장치의 미비와 그로 인한 감독사각지대로 인하여 각종 재보험사고에 노출되었다. 한편, 재보험거래의 지구적 성격(global nature)과 위험분산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국경 간 재보험거래촉진 및 재보험감독기준표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재보험거래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재보험감독기준의 명문화 및 구체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한편, 국경 간 재보험거래촉진 및 재보험감독기준표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안전한 재보험거래를 위한 각종 규제는 자칫 시장진입제한 조치로 작용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재보험거래 규제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급변하는 재보험 글로벌규제 변화에 따른 재보험거래의 안전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먼저 우리나라 재보험산업의 현황과 특징을 시장 및 규제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재보험산업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둘째, 1997년 해외재보험회사에 적용된 국내시장 진입장벽 제거의 영향을 재보험거래의 안전성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안전성 제고에 의거한 시장제한적 조치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셋째, IAIS(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ors)를 비롯한 주요국의 안전한 재보험거래 도모 방안들을 살펴본다. 이로써 재보험감독에 대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안전한 재보험거래를 통해 국내 보험회사와 계약자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한다.

기대효과 재보험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재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향후 재보험거래에 대한 법, 제도, 감독기준 정비시 참고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보험회사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오영수(선임연구위원)·변혜원(연구위원)·김경환(전문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배경 보험업에 대한 진입 자유화와 퇴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정책당국자 입장에서는 진입과 퇴출 결정시 제도와 현실 사이에서 판단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진입의 경우에는 과당경쟁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며, 퇴출의 경우에는 공적자금 투입 및 소비자보호 등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즉, 보험회사의 진입 및 퇴출에 대해서 규제 및 제도의 문제보다는 경쟁에 대한 시각과 제도 운영상의 문제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보험회사의 진입 및 퇴출과 관련한 제도와 운영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본 연구는 보험산업에서 경쟁정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진입 및 퇴출제도와 그 운영에 대해 연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보험시장 내 적정한 경쟁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보험산업 및 보험소비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론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경쟁정책으로 인해 건전성과 영업행위 측면에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그로 인해 소비자 후생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도 운영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주요국의 제도 운영도 살펴봄으로써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참고하고자 한다. 이를 기초로 보험산업의 진입 및 퇴출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제시한다.

특히 이미 진입자유화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진입기준 설정에 대한 기술적 측면보다는 금융감독당국이 시장경쟁과 퇴출을 동시에 고려한 진입규제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해 연구의 중점을 두고자 한다. 또한 경쟁정책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간에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다.

기대효과 적절한 제도 운영을 통해서 보험시장의 유효경쟁 수준을 높여서 혁신적 경영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제고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퇴출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산업의 건전성을 높이고 보험회사의 대형화를 유도함으로써 규모 및 범위의 경제효과를 기반으로 타 금융회사는 물론 글로벌 보험회사에 대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금융규제 체계의 국제적 조화방안 연구

오영수(선임연구위원)·이승준(연구위원)·김경환(전문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배경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금융의 글로벌화, 금융시스템 간 경쟁, 금융규제의 국제적 기준 설정 등이 본격화 되면서 금융규제의 국제적 조화가 중요해졌다. 특히 2007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 관련 국제기관들과 개별 국가 금융정책 및 감독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과 함께 국제기관과의 협력도 중요해졌다. 그리하여 시스템 리스크와 관련한 거시적 건전성 분야를 비롯하여 지배구조, 소비자보호 등의 분야에서도 규제체계의 국제적 조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금융정책 및 감독의 국제적 공조 및 국내 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내용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먼저 금융의 글로벌화가 진전됨에 따라 규제 및 감독의 국제적 조화가 필요해지는 배경 및 원리에 대해서 조사·연구한다. 그리고 국제기구 또는 국제회의 등에서 도출되는 금융 및 보험 규제의 국제적 기준 설정 현황을 조사하여 비교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 금융규제의 목적, 이론 및 현행 제도, 국제기구의 역할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사를 하면서 금융 및 보험 규제의 국제적 기준 설정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참여하여 영향력을 미치는 정도와 한계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가 이를 수용하여 국내 규제를 재구축하는 과정상의 현황 및 문제점을 문서와 면담을 통해 조사한다.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면 그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보험을 제외한 금융분야와 보험분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본 연구는 금융의 글로벌화 시대에 대응하여 금융규제의 국가적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이론 및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효율성 저하가 생겨나는 문제를 극복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연구

조재린(연구위원)·이기형(선임연구위원)·정인영(연구원) | 보고서

연구배경 화재나 자동차사고 등으로 인한 인적피해는 자신의 사망이나 부상에 대한 보험가입 등의 리스크관리가 되어 있지 못한 경우에는 가정의 생계와 자녀들의 교육이 곤란해지며 나아가 가정 파탄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사회적 리스크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가 통제하는 사고가 아닌 대부분 경우에 대해 사회보험 또는 의무보험을 통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인적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대부분이 일시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조기 소진으로 인해 보험금의 본래 목적인 피해가정의 소득보상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가정 보호측면과 인구고령화 측면에서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의무보험 중 인적사고에 대한 보상방식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연금 등의 방식으로 다양화하여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내 인적사고 보상을 사회보험방식과 의무보험방식으로 비교 분석하여 그 효용의 차이점을 도출하고 일시금 지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생애소득과 생애소비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지급방식 다양화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일시금방식과 정기금방식의 선호도와 선호 이유를 파악하고자 한다.

나아가 주요국의 인적사고 정기금 지급방식의 도입배경,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양한 지급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더불어 각각의 지급방식과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지급방식별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분석하고 지급방식 다양화에 따른 관련법 및 세제문제를 검토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보상금이 단기간에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사고가정의 건전한 복구에 기여하며 조기소진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갈등요인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보험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의 제고를 통해 신뢰를 재구축하고 보험산업 내 운용자산의 축적을 통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기관으로서 역할이 증대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KiRi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Chapter 4

재무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강화

- 현금흐름방식 보험가격 산출방식이 보험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
- 보험산업의 RBC제도 발전방향 연구
- 경기변동을 반영하는 보험요율제도 도입 연구
- 보험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현금흐름방식 보험가격 산출이 보험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

김해식(전문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목적 현재 보험회사는 위험률, 이자율, 사업비라는 세 가지 이익의 원천별로 구분하여 보험가격을 산출하고 있으나, 최근 감독당국은 상품 인가 등과 관련하여 현금흐름방식 보험가격결정(CFP : cash flow pricing)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CFP 도입이 보험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CFP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의 현금흐름을 평가하여 수익성을 미리 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품개발 단계에서 목표이익을 반영하거나 조정할 수 있어 판매 전에 이익과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보다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표준율 규제와 저금리 시장 상황에 따라 사업비차익에 의존하고 있는 보험산업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물론 여기에는 표준율과 표준준비금 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감독방식의 변화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보험회사의 경영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가격산출방식과의 비교, 새로운 보험부채 평가와 가격산출이라는 관점에서 CFP의 개념과 특성을 도출하고, CFP 도입 시 상품포트폴리오, 자산포트폴리오에 나타날 영향과 소비자 및 감독 측면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보험회사의 CFP 적용과 감독에 관한 해외 사례를 통해서 CFP 시행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정책적, 경영적 요인들을 다루고자 한다.

기대효과 CFP 도입은 보험료를 일반 금융상품과 유사하게 산출하는 방식으로의 전환 이상의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CFP 시행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보험회사의 새로운 경영성과 분석과 소비자 보호 및 보험회사의 재무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보험산업의 RBC제도 발전방향 연구

- 생명보험의 사망률 리스크를 중심으로 -

조용운(연구위원) 외 공동연구 | 보고서

연구배경 2009년 11월 금융감독원은 RBC 내부모형 승인기준을 발표하여 우리나라 지급여력제도의 발전과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수준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하여 감독자와 보험회사는 제도도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부모형의 사용은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의 상품구성, 고객속성과 보험자산의 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다 정확한 위험액을 측정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규모의 효과와 위험분산 효과 등을 반영할 수 있어 보다 발전된 위험액 측정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확률론적 리스크 측정모형 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첫 번째 단계로 확률론적 사망률 리스크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감독자의 정책을 지원하고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주요내용 정확한 사망률 리스크(Motality risk)의 측정 및 평가는 기대수명이 연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작업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사망률 리스크(Motality risk)의 측정 및 평가 방법에 대해서 심층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주요 리스크인 추세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하여 Lee-Carter (1992)모형과 Renshaw & Harberman(2006), Currie(2006), Carins외 2인(2006) 등의 다양한 모형을 데이터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해 볼 것이다.

지급여력제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감독자의 제도개선 노력을 지원하고 보험회사의 사망률 리스크 관리방향을 제시하며, 사망률 리스크 측정방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기대효과 다양한 사망률 리스크의 측정모형 및 실증분석결과는 감독자의 지급여력제도 개선 노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생명보험의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 있다. 다양한 확률론적 리스크 측정모형을 통해서 보험회사의 내부모형승인제도 도입효과의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경기변동을 반영하는 보험요율제도 도입 연구

김소연(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배경 보증보험과 같이 손해액이 경기변동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보험종목들은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보험요율을 책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며 리스크가 크다. 손해보험의 대부분 종목들은 지난 몇 해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요율을 조정하지만,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목들은 지난 몇 해의 데이터가 많은 정보를 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적절한 예정손해율을 책정하기 어렵고, 실제손해율의 편차도 크기 때문에 타 종목에 비해 요율책정으로부터 오는 리스크가 크다. 따라서 경기변동을 반영한 적절한 보험요율 측정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는 보험종목들의 요율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내용 우선 본 연구는 경기변동에 민감한 보험종목과 그렇지 않은 보험종목의 손해율 양상과 요율책정방법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현재의 보험요율제도를 조사하고, 경기변동과 손해율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경제성장률, 금리, 물가 등 대표적인 거시경제변수와 손해율간의 관계를 탐구한다. 또한 경기변동지표를 이용한 손해율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도 적절한 통계 모형을 이용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해외의 경우 경기변동을 반영하는 보험요율제도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의 경기변동 반영 보험요율제도를 조사 및 분석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경기변동과 밀접한 움직임을 보이는 보험종목의 요율을 개선하는 것은 중요한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는 저자가 아는 한 국내에서 연구된 바가 없다. 본 연구를 통하여 경기변동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험종목들의 보험요율제도 개선을 기대하며, 특히 일반 손해보험종목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보험요율제도를 모색할 것이다.

보험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이창우(연구위원)·이기형(선임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배경 최근 한국은 자살율이 급증하고 있어 전체 사망원인 중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OECD국가 중 자살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자살 증가는 심각한 국가·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자살이 만연하는 환경 속에서 고의적 자해로 보험금을 타고자 하는 사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의적 자해는 보험 본연의 목적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보험가입자와 미가입자의 자살 현황을 조사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자살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자살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일조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보험가입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앞서 국내외 보험가입자와 미가입자의 자살률 추이를 살펴볼 것이다. 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내 보험가입자의 자살율과 보험 미가입자의 자살률을 추정하고 비교·분석 후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보험 약관상 보장내용과 예외조항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주요국의 보험가입자들의 자살율을 조사하고 자살에 대한 보장내용과 예외조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실증적 분석을 위해서 먼저 보험가입과 자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자살과 특별히 관련이 있는 질병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개인의 자살과 상관관계에 대하여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과 보험회사별 보장내역을 조사하고 자살의 보장여부와 자살률의 관계를 살펴본다.

보험가입과 자살 발생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보험가입으로 인한 고의적 자살의 가능성과 자살을 염두해 둔 보험가입의 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기대효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 발생률의 감소를 위한 보험 정책수립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의적 자해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 비용 감소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